

제415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6월11일(화)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간사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5
o 간사(김현) 인사	5

(16시03분 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서 오늘 회의가 22대 전반기 국회에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라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과방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불참한 가운데 첫 회의를 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상임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어려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여야가 동참하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간사 선임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첫 전체회의이므로 일단 간사 선임 전에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가요?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김현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입니다.

오늘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 선출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국민들의 요구,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통신 분야의 이용자들에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보다 국민들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다음은 김우영 위원님.

○김우영 위원 과학기술 입국에 기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방송과 정보통신의 융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과 또 뉴미디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과기정통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22대 국회에 들어서 원 구성 협상 과정에 가장 부각된 상임위로 과방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랬던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국민들께서 과학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 더불어서 큰 우려를 하고 계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생태계가 조금 더 발전하고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재정립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탄압을 이겨내고 정상화해야 한다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방송 등 전반에 안정화, 정상화를 가져오고 더 나은 단계로 진일보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하는 그런 상임위 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규 위원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위원장님, 간사님과 함께 과기정위 원활한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개혁신당의 이준석 위원님,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위원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좋은 의정활동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방송과 언론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언론탄압 그리고 방송 장악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추구하고 우리 언론인들이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언론환경,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방송 3법을 비롯해서 시급한 현안들 잘 쟁기겠습니다. AI 관계법을 비롯한 과학기술과 관련된 현안들도 적극적으로 쟁기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과방위에서 한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입니다.

과방위가 방송통신은 물론 ICT, 원자력까지 아주 큰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루는데 과거의 과방위를 보면 언론에 너무 집착을 해서 여러 가지를 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지금 언론 환경, 언론 생태계, 그리고 언론이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언론 환경이 엄혹하잖아요. 그런 언론 환경, 언론인들이 누구든 자유롭게 언론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과방위에서 조성해 주는 데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언론 이외의 분야도 포괄적으로, 이 상임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갑 조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간사님, 아직 안 뽑히셨지요.

요즘같이 방송이 시끄러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R&D, 우리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하는 R&D 분야의 대폭적인 삭감 이런 것들이 우리 연구인력이나 연구기반들을 상당히 지금 잡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방송이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우리 미래 성장동력인 과학기술이 보다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상임위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과 같이 일하게 돼서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뿐만 아니고 이준석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다들 아시는 분들이 같아해서 좋습니다.

집권당인, 집권당이지요.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국회를 열자는 데 무슨 명분으로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루빨리 오셔 가지고 할 말씀도 하고 같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이름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아니겠습니까? 배치가 되고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챙겨야 될 부분도 많고 다 우리 국민들 삶에 직결되는 부분이 엄청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때는 우리 과방위가 다수 국민들로부터 조금 일을 많이 하지 못한 상임위라는 이런 비판도 받았는데 우리 상임위는 위원장님과 함께 모두 힘을 모아서 정말 생산적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도 많이 생산하고 그리고 정책도 추진해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상임위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정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황정아입니다.

22대 국회 과방위 첫 번째 회의부터 불참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R&D 예산 삭감은 연구 현장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조변석개하고 있는 과기정책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 백년대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총선 심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행을 바꾸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서 국회 본연의 일마저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국민의 분노에 부채질만 더하고 있는 꼴입니다.

과방위는 일을 하는 상임위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R&D 예산 삭감에 따른 인력 유출과 기술 격차 회복에는 수년이 걸릴지 수십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 기차를 지금이라도 되돌려 세워야 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예산을 삭감할 수 없도록

R&D 추경 등 긴급수혈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어떻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R&D 예산이 삭감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법한 사항들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의 몽니에 발목 잡힐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과방위는 국민이 총선 민의로 명령하신 본연의 책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의힘도 과방위 회의장으로 돌아오길 촉구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직이 부끄럽지 않은 책임 정치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다음으로 조국혁신당 이해민 위원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먼저 위원장님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빨리 돼서 너무 좋네요.

지금 저희 상임위의 이름이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정말 방대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지금 모두가 아쉬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제 옆자리가 쭉 비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아쉬움을 느낍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꼭 다음부터는 참석을 해 주시면 정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부가 효과적인 그리고 굉장히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전 세계는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넘어서 AI 대전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언론조차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 뉴미디어, 언론 그리고 IT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열심히 해 볼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하고요.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과방위에서 그것 제일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다음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 이준석입니다.

사실 방금 전에 이해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협력과 그리고 상부상조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른 전문성과 다른 이력을 가지고 모이셨지만 이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서로 도움을 준다면 위원회 운영이 원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합니다.

마침 오늘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제출요구를 통해 가지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등으로 인해서 과학기술 인재들의 유출이 심각하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준으로 자연대학교와 공과대학교에서 1학년 자퇴생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향후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에 큰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방위를 들어오기 전에 항상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언론 관계나 방송 문제 등으로 많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하에서 언론의 자유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다룰수록 저는 여당 위원들의 어떤 의견도 청취해 가면서 저희가 의견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합리적인 의사일정을 계속 방해하는 여당의 행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시되, 다만 여당 위원들의 주장도 항상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의힘의 위원님들, 이번에 과방위에 지원하신 분들의 명단을 제가 들어 보니 한 분 한 분 다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또 의지가 있는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여 가지고 저희가 시급한 현안들을 다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여러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 받들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명단에 따르면 이게 확정된 것인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의힘의 권영진 위원님, 김장겸 위원님, 박정훈 위원님, 박충권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이상휘 위원님, 정연욱 위원님 등이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과방위원으로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속히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6시18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50조는 위원회의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분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간사만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현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좀 멀리셨죠?

(웃음소리)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현 간사님, 그 정도 인사로는 안 되고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김현) 인사

○김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을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해 주신 김우영 위원,

노종면 위원, 박민규 위원, 이정현 위원, 이훈기 위원님, 조인철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이준석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후에 여당 간사님이 선출되면 여야가 협의를 잘해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원만하고, 또 각 당의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바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걱정하는 것보다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제가 3년 동안 일했던 저 자리, 혹시 맞은편에 있는 자리가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함께 여야 위원님들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부족하거나 채워야 될 점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고요. 우리 위원장님 지도 아래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22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각별히 우리 언론인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잘 보도록 해주시고. 또 특히 전문위원님들과 행정실에 있는 많은 분들, 보좌진들께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상임위인 만큼 더욱더 노고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열심히 일해서 박수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감사합니다, 김현 위원님.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님께서 특별히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보통은 첫 회의에서 소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소위 구성이 원활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자리에는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두 분 위원님들께 어느 소위를 원하시는지 나중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및 보좌진,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우영 김현 노종면 박민규 이정현 이준석 이해민 이훈기 조인철 최민희
한민수 황정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서덕교

【보고사항】**○위원 선임**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김우영 김현 노종면 박민규 이정현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한민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2024. 6. 10.
권영진 김장겸 박정훈 박충권 신동욱 이상휘 정연욱	국민의힘	2024. 6. 10.
이준석 이해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2024. 6. 10.